■ 민족문화연구 제95호(2022.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41-170.
http://doi.org/10.17948/kcs.2022..95.141

『한국천주교회사』(샤를르 달레, 1874)의 편찬과 한글 번역

양인성(梁仁誠)*

목 차

1. 머리말
2.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 편찬
3. 『한국천주교회사』 한글 번역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샤를르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 주목한 연구이다. 달레의 조선 천주교회사 편찬 배경과 시기, 편찬 과정에서 그와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의 교류를 검토하였다. 『한국천주교회사』가 조선에 전해져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도 살펴보았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달레는 질병으로 1867년 프랑스에 귀국하였다. 그가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에서 맡게 된 일은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 다블뤼의 문서 정리였다. 달레는 다블뤼의 문서를 정리하면서 조선과 조선 천주교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달레는 다블뤼의 조선 천주교회사 편찬 작업도 이어나가게 되

* 한국천주교사료목록화사업추진위원회 위촉 연구원.

었다. 달레가 조선 천주교회사의 편찬을 시작한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1872년이 아니라 1868년경이었다.

달레는 다블뤼의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 천주교회사의 편찬 작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조선을 방문한 경험도 없었으므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천주교회의 동료 선교사들에게 서한을 보냈고 자료와 조선의 제도, 조선어 등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는 이와 같은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조선 천주교회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

1874년 프랑스에서 『한국천주교회사』가 간행되자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은 한글 번역을 추진하였다. 그들은 『한국천주교회사』의 중국어 번역서인 『고려주증』을 한글로 번역하려 했다가 프랑스어 원서를 번역하기로 했다. 번역 작업은 1885년경부터 1900년대 초까지 선교사들이 분담하였다. 한글 번역서는 출간되지 않았고 『경향잡지』에 연재되었다. 이처럼 『한국천주교회사』 편찬에서 번역에 이르기까지의 전(全) 과정이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이뤄졌다. 일부만 번역되던 『한국천주교회사』는 1981년에 한글로 완역되었다.

주제어: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다블뤼, 페롱, 리델, 칼레, 『고려주증』.

1. 머리말

이 글은 클로드 샤를르 달레(Claude Charles Dallet, 1829-1878)의 『한국천주교회사』[1]에 주목한 연구이다. 달레는 인도에서 활동한 파리외방전교회[2] 선교사였다. 그는 조선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조선을 방문한 경험도 없었다.[3] 그런 그가 한국에서 잘 알려지게 된 이유는 『한국천주교회사』 때문이다.

---

1) 원제는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이다. 이 책의 한글 완역본은 안응렬・최석우 역주(譯註)의 『한국천주교회사』상・중・하,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1981이다. 완역본의 제목이 학계에서도 널리 통용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달레의 책을 『한국천주교회사』라 지칭하도록 하겠다.

2) 파리외방전교회(Société des Missions Etrangères de Paris)는 1658년 프랑스 파리에서 해외 선교를 목적으로 창립된 가톨릭 선교회이다. 교황청은 1831년 9월 9일 조선대목구(朝鮮代牧區)를 설정하고 파리외방전교회의 브뤼기에르(B. Bruguière, 蘇)를 초대 대목구장에 임명하였다. 1836년 1월 12일 모방(P.P. Maubant, 羅伯多祿)을 시작으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하였다(최석우, 「파리외방전교회」, 『한국가톨릭대사전』11, 한국교회사연구소, 2005, 8787-8793면; 방상근,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 내포교회사연구소, 2018, 95-110면).

3)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인명사전'이나 '표준 국어 대사전' 등에서는 달레가 조선에서 선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달레는 조선에서 활동하던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문서를 토대로 『한국천주교회사』를 편찬하였다. 이 책은 1874년 프랑스에서 전 2권으로 간행되었다. 그 내용은 서설과 본문으로 구분된다. 서설에는 조선의 지리・역사・왕실・정부 조직・사법・과거와 교육 등 조선의 제도와 문화가 총 15개의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다. 본문은 천주교회사로,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의 천주교 입교부터 시작하여 병인양요 등으로 많은 신자들이 처형된 1870년까지를 다루고 있다.

『한국천주교회사』는 최초의 한국천주교회사 통사(通史)이다.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의 서한을 '간추리지 않고 전문(全文)을 인용'한 자료집이기도 하다.[4]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천주교회사 연구의 필수 자료로 활용되어왔다. 또한 『한국천주교회사』는 '은둔의 나라' 조선에 있었던 유일한 서양인인 프랑스 선교사들의 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조선을 집중적으로 다뤘고, 조선의 문화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까닭에 『한국천주교회사』는 19세기 서양인(프랑스인)의 조선 인식을 다루는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다.[5]

1981년 한글 완역을 계기로 『한국천주교회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이 책과 다블뤼(M.N.A. Daveluy, 安敦伊)[6]의 원고[備忘記]와의 연관성 문제가 주목되었다.[7] 『한국천주교회사』와 다블뤼가 작성하여 파리외방전교회에 보낸 원고가 대조 검토되었다. 그 결과, 달레가 다블뤼의

4) 샤를르 달레 원저,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상,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17면.
5) 프레데릭 불레스텍스 지음, 이향・김정연 옮김,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 청년사, 2001, 106-111면.
6) 다블뤼는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로, 1845년 10월 12일 조선에 입국했다. 1857년 3월 25일 서울에서 주교로 서품되었고, 부주교(副主敎)로서 제4대 조선대목구장 베르뇌(S.F. Berneux, 張敬一)를 보좌했다. 1866년(병인) 3월 7일 베르뇌가 처형되자, 다블뤼는 제5대 조선대목구장이 되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11일에 체포되어 3월 30일 충청남도 보령 갈매못에서 처형되었다.
7) 최석우, 「달레 저 한국천주교회사의 형성 과정」, 『교회사연구』3, 한국교회사연구소, 1981; 「Dallet가 인용한 정약용의 『조선복음전래사』」, 『한국 교회사의 탐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김정숙, 「대구 순교자들에 관한 사료 분석—프랑스어 사료를 중심으로—」, 『대구 순교사 연구—시복 시성을 위한 연구 논문—』, 천주교 대구대교구, 2001; 「신유박해에 관한 프랑스어 자료 분석—달레와 다블뤼의 자료 비교—」, 『신유박해 연구의 방법과 사료』,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3; 김규성, 「조선 천주교회의 순교자 관련 기록 연구」, 서강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원고를 많이 참고하였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이를 두고 최석우, 조광[8] 등은 『한국천주교회사』를 달레와 다블뤼의 공동 저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한국천주교회사』가 달레의 단독 저작이라는 견해도 있다. 다블뤼의 원고를 참고했지만, 그 외의 자료도 수집하고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달레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9]

『한국천주교회사』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달레의 책과 다블뤼 원고의 대조 검토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천주교회사』와 관련된 기초적인 문제조차 규명되지 못하였다. 기초적인 문제란 첫째,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 편찬 배경에 관한 것이다. 조선과 상관없던 달레가 어떻게 조선 천주교회사를 편찬하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달레가 1870년부터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과 연락을 하면서 조선 천주교회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거나 아니면 교회사 편찬을 위촉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10] 그런데 파리외방전교회 문서를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달레가 1872년부터 2년간 이 책의 원고를 썼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또한 정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달레가 조선 천주교회사 편찬 배경 및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 편찬 과정에 관한 문제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달레는 조선에서 활동하지도, 조선을 방문하지도 않았다. 그런 그가 어떻게 조선 천주교회사를 편찬할 수 있었을까? 다블뤼가 작성한 풍부한 양의 자료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달레가 아무런 도움이 없어 이를 정리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달레는 편찬 과정에서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조력자는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이었다. 달레는 그들과 서한을 주고받으며 교류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서한 왕래가 있었다고만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을

8) 조광, 「우리 교회사의 보배로운 기록—한국천주교회사—」, 『경향잡지』1500호, 경향잡지사, 1993.3.
9) 김수태, 「샤를르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 『교회사연구』4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6. 김규성도 달레가 유일한 저자이고, 다블뤼를 주요 자료 제공자 및 증언자라고 했다(김규성, 앞의 글, 81면).
10) 최석우, 앞의 글, 1981, 118면.

뿐, 서한의 내용이나 교회사 편찬과 관계된 설명은 없다.[11] 그러므로『한국천주교회사』의 편찬 과정에서 달레와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의 교류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한국천주교회사』의 한글 번역에 관한 것이다. 1874년 프랑스에서 간행된『한국천주교회사』는 조선에 전해져 번역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알려졌지만, 그 내용에 오류가 있고, 자세하지도 못하다.[12]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글 번역이 언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파리외방전교회(A-MEP)의 조선 관계 문서철 제579권(Vol.579)・제580권(Vol.580)・제581권(Vol.581)을 검토하였다. 파리외방전교회에 있는 달레와 관련된 자료도 조사하였다.『한국천주교회사』의 프랑스어 원서와 한글 번역서를 살펴보았다. 중국에서『한국천주교회사』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고려주증(高麗主證)』도 검토하였다. 이 밖에『한국천주교회사』를 다룬 기사나 잡지 등도 참고하였다.

2. 달레의『한국천주교회사』편찬

1) 편찬 배경 및 시기

달레의 이력을 간략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달레는 1850년 10월 5일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1852년 6월 5일 사제품을 받았다. 1852년 8월 20일 선교지인 인도의 마이쑤르(Maïssour)로 떠났다. 첫 임지는 인도 남부 방갈로르(Bangalore)에 있는 블랙팔리(Blackpally, Shivajinagar) 본당이었다. 5년 후에는 인도 남부 마이소르(Mysore) 본당의 주임 신부가 되었다. 1858년에는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의 지도 신부로 발탁되었으나, 사양하였다. 달레는 간질성 질환을 앓았고 이로 인해 1860년 프랑스로 귀국하였다. 1863년 선교지인 마이소르로 돌아갔으나 병이 재발하여 1867년에 다시 귀국

11) 최석우, 앞의 글, 1981, 118면.
12)「『한국천주교회사』 번역본」,『교회와 역사』43,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3, 1면.

하였다. 달레의 선교사 이력은 이것으로 끝이었다. 1870년대에 남북 아메리카와 동아시아를 방문한 것을 제외하곤 주로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에서 활동하였다.[13]

1867년 질병으로 귀국한 달레가 파리외방전교회 본부(이하 '파리 본부')에서 맡은 일은 문서 정리였다. 주목할 점은 그가 조선 천주교회의 문서를 정리했다는 것이다. 달레가 맡은 일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페롱(S. Féron, 權)이 달레에게 보낸 1867년 5월 15일자 서한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 신부님이 3월 10일자 서한을 받았습니다. 시복 조사 위임장(lettres rémissoriales)에 관해 정보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문서도 개봉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로마에서 주교님 한 분을 보내어 그분이 다른 지침들이 내려받기 전에는 저희는 감히 열어보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조선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신부님께서 다블뤼 주교님의 저작을 프랑스어로 옮기는 일을 기꺼이 맡겠다고 하셨으니 이에 대해서는 [조선] 선교지의 이름으로 신부님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내용도 바꾸지 마시기를 신부님께 청합니다. 아무리 세세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다블뤼] 주교님께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사실 확인 작업을 하여 작성하셨고, 형식 때문에 내용에서 벗어나면 하나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
>
> 여러 다른 문서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이름을 식별하시느라 아마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 한자로 쓰였기 때문인데 두 나라[인용 주: 조선과 중국]가 한자를 발음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 성(姓) 목록을 중국식·조선식·프랑스식 발음으로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신부님께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 혼란스러워하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프랑스어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표기하였고, 중국어는 제가 아는 것만 표기했습니다.[14]

페롱은 조선에서 활동하던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로, 1866년 병인교옥(丙寅敎獄) 때 중국으로 피신하였다.[15] 주교들과 고참 선교사들이 모두 처형되

---

13) Adrien Launay, *Mémorial de la Société des Missions-Étrangères, Deuxième Partie,* Séminaire des Missions Étrangères, 1916, p.169.

14) A-MEP: Vol.579, ff.1335-1337.

15) 병인교옥 때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12명 중에서 9명이 처형되었고, 페롱, 리델(F.C. Ridel, 李福明), 칼레(A.-N. Calais, 姜)는 중국으로 탈출하였다.

었으므로 생존한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연배가 높은 페롱이 조선 선교지의 대표를 맡았다.[16] 그는 병인교옥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조선 재입국도 모색하였다.[17] 그러던 가운데 그는 달레의 1867년 3월 10일자 서한을 받았다. 달레의 서한에는 '다블뤼 주교의 저작'을 프랑스어로 옮기는 일을 맡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다블뤼 주교의 저작'은 무엇이었을까? 시복(諡福) 조사 위임장, 순교자 이름 식별 등이 언급된 것으로 볼 때, '다블뤼 주교의 저작'은 조선 천주교회 순교자 관련 문서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달레의 서한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블뤼 주교의 저작'을 '프랑스로 옮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다만, 달레가 다블뤼의 문서를 정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 순교자 관련 문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다. 천주교는 조선에서 '사학(邪學)'으로 규정되었다. 이로 인해 1784년 천주교회 설립 이후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되었다. 천주교회는 이 순교자들을 신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본보기'로 삼고자 했다. 이에 선교사와 신자들은 1839년 기해교옥(己亥敎獄) 때부터 순교자 관련 기록을 작성하였다. 그들은 이를 토대로 하여 순교자들이 공적 경배 대상인 복자(福者)가 되길[諡福] 희망하였다.[18]

순교자 관련 자료가 폭넓게 수집된 것은 다블뤼에 의해서였다. 그는 1856년 조선대목구장 베르뇌의 지시에 따라 순교자 관련 자료와 증언을 수집하였다. 다블뤼의 작업은 1857년 9월 24일 교황청의 시복 조사 지시가 내려지면서 탄력을 받았다. 그는 수집한 한글 및 한문 자료를 번역하고 순교자 전기, 비망기 등을 작성하여 파리 본부로 보냈다.[19] 이후에 자료 조사와 검토, 시복 수속이 진행되었고, 1925년 7월 5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기

16) 조현범, 「덕산 사건과 프랑스 선교사 페롱」, 『정신문화연구』40-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68면.
17) A-MEP: Vol.579, ff.991-998, ff.1297-1300.
18) 수원교회사연구소, 『페레올 주교 서한』, 천주교 수원교구, 2012, 445면.
19) 최석우, 앞의 글, 1981, 120-125면.

해(1839)·병오년(1846) 순교자 79명의 시복식이 거행되었다.

달레는 다블뤼가 파리 본부로 보낸 조선 순교자 관련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 조선 천주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던 달레가 이러한 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문서를 정리하려면 기본 지식, 예컨대 조선의 상황, 인명이나 지명 표기 등을 숙지해야 하지만 달레가 이를 자세히 알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가 다블뤼의 문서 정리를 맡았던 것일까?

선교지에서 보낸 문서 정리는 파리 본부의 문서고(文書庫)에서 담당한다. 그러므로 달레에게 문서 정리를 맡긴 문서고 책임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67년 당시 문서고 책임자는 루세이유(J.J. Rousseille)였다. 그는 조선에서 활동하진 않았지만 조선 천주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1856년부터 1860년까지 파리외방전교회 홍콩대표부에서 활동하면서 베르뇌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20] 또한 루세이유는 조선인 이만돌, 김기량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만돌은 1854년 조선 천주교회에서 말레이반도의 페낭(Penang) 신학교에 유학 보낸 신학생이었는데, 건강 악화로 신학교를 떠나 홍콩대표부에 머물렀다. 김기량은 제주 출신의 상인(商人)으로, 1857년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구조되어 홍콩대표부로 보내졌고, 이만돌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루세이유로부터 세례를 받았다.[21] 루세이유는 1860년 프랑스에 귀국한 후에도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과 계속 연락하였다. 예컨대, 페롱은 1859년부터 1868년까지 루세이유에게 총 11통의 서한을 보냈다.[22] 1868년 2월 루세이유는 달레가 조선 천주교회사를 편찬하고 있음을 페롱에게 알려주기도 했다.[23] 이처럼 루세이유는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과 연락하였고, 조선인들과도 만났다.

---

20) 베르뇌는 루세이유에게 1857년부터 1863년까지 총 4통의 서한을 보냈다(한국교회사연구소 역, 『베르뇌 주교 서한집』상,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382-385면, 518-527면; 『베르뇌 주교 서한집』하, 204-209면, 480-485면).

21) 가톨릭대 신학대학 150년사 편찬위원회 편,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 가톨릭대 신학대학, 2007, 86-87면.

22) A-MEP: Vol.579, ff.376-378b, ff.379-380, ff.568-574b, ff.664-671, ff.1342-1344, ff.1345-1347, ff.1351-1353, ff.1372-1375, ff.1401-1404, ff.1415-1420, ff.1436-1442b.

23) A-MEP: Vol.579, f.1419.

그래서 그는 조선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루세이유는 1860년 귀국한 뒤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서 성서와 전례를 가르치면서 문서고 정리 업무도 맡았다. 그는 약 10년간 문서들을 분류하여 목록을 만든 다음에 문서를 묶어 300권의 문서철을 만들었다.[24] 많은 문서를 정리하기 위해선 조력자가 필요했을 것이고 때마침 파리 본부에 있는 달레에게도 이 업무를 맡겼던 것 같다. 달레는 조선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지만 루세이유의 도움을 받으며 다블뤼의 문서를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달레는 페롱에게 보낸 서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에게도 연락하여 조언을 받기도 했다.

달레는 다블뤼의 문서를 정리하면서 조선과 조선 천주교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맺어진 달레와 조선 천주교회와의 관계는 조선 천주교회사 편찬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조선 천주교회사 편찬 작업은 달레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 천주교회사 편찬은 병인교옥 이전부터 선교사들에 의해 계획되었다. 1856년 베르뇌는 다블뤼에게 순교자 자료 조사와 함께 교회사 저술도 지시하였다.[25] 당시 다블뤼는 선교사들의 언어 학습을 위해 조선어-중국어-프랑스어 사전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사전 작업을 끝낸 후부터 조선 천주교회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26] '완전한 조선 천주교회사'를 목표로 하여 초기 교회사를 다룬 서양어 자료를 파리 본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블뤼는『조선사 서설 비망기(Notes pour l'introduction à l'histoire de Corée)』,『조선 순교사 비망기(Notes pour l'histoire des Martyrs de Corée)』등을 작성하였고, 이를 1862년 홍콩대표부를 통해 파리 본부로 발송하였다.[27]

다블뤼가 파리 본부에 보낸 초고는 편집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초고 그대로를 보낸 것을 파리 본부가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아울러 파리 본부에서 출간하려 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을 달았다. 첫째, 전체적이건 부분적이건

24) 조현범,「황사영 백서 불역본에 관한 연구」,『교회사학』12, 수원교회사연구소, 2015, 225면.
25) 최석우, 앞의 글, 1981, 121면.
26)『베르뇌 주교 서한집』상, 429면.
27) 최석우, 앞의 글, 1981, 122-123면.

그대로 출간하는 것은 금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편집을 위촉하여 간행한다면, 뵈이요(Veuillot)[28]에게 편집을 맡기기를 원하며, 출간 전에 자신이 교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초고를 발송한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순교자 자료를 계속 조사하였다.[29] 하지만 다블뤼가 병인교옥 때 처형되면서 자료 조사도 중단되었다.

파리외방전교회는 중단된 조선 천주교회사 편찬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었다. 파리외방전교회는 장래에 파견될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동아시아의 문화·문학 등을 교육했다. 중국사와 일본사도 배웠다는데[30] 그 과정에서 조선에 관한 정보를 접했을 것이다. 달레가 조선 천주교회사를 편찬할 때 참고한 프랑스인 예수회 선교사인 레지(J.B. Régis)의 책,[31] 일본에서 활동했던 네덜란드인 의사이자 연구자인 지볼트(P.Fr. von Siebold)의 책[32] 등을 보았을 듯싶다. 그런데 이 서적들은 중국과 일본에서 활동한 서양인들이 저술한 책이고, 조선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조선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의 문화와 역사(천주교의 역사)를 다룬 책을 편찬할 필요가 있었다. 이 일을 맡은 것이 달레였다.

달레는 언제부터 조선 천주교회사 편찬 작업을 시작하였을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달레가 1872년부터 집필하여 1874년에 『한국천주교회사』를 출간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조선 천주교회사 편찬 작업을 시작한 것은 1872년 이전이었다. 페롱이 루세이유에게 보낸 1868년 4월 7일자 서한이

---

28) 루이 프랑수아 뵈이요(Louis François Veuillot)로 추정된다(A-MEP: Vol.579, f.639 참조). 뵈이요는 프랑스의 가톨릭 언론인이자 작가이며 특히 교황권 지상주의(教皇權 至上主義, Ultramontanism)의 신봉자로 유명하다(*The New Catholic Encyclopedia(2nd ed.)14*, Gale, 2003, pp.465-466).

29) 최석우, 앞의 글, 1981, 123-125면.

30) Ragot-Delcourt, Veronique, *L'imprimerie au Service de la Mission: les Missions étrangères et l'apostolat par le lives(années 1770-1880)*, Thèse de Doctorat d'Histoire, Université Strasbourg II-Marc Bloch, 2008, p.157(이은령, 「『한어문전』의 문법 기술과 품사 구분-문화 소통의 관점에서 다시 보기」, 『프랑스학 연구』56, 프랑스학회, 2011, 181-182면 참고).

31) *Observations géographiques sur le royaume de Corée*(『한국천주교회사』상, 26면).

32) *Nippon: Archiv zur beschreibung von Japan und dessen neben*(『한국천주교회사』상, 38면).

그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바대로 신부님께서 일거리가 많은 탓에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면 조선 역사(l'histoire de la Corée)를 달레 신부님이 맡으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기쁩니다. 달레 신부님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분께서 이 일을 잘 하시리라는 확신이 듭니다.[33]

위 서한에서의 '조선 역사'는 조선 천주교회사를 말한다. 조선 천주교회사 편찬자로 가장 적합한 이는 루세이유였다. 이미 보았듯이 루세이유는 문서고의 책임자였던 데다가 조선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을 포함한 3개 지역 선교지의 경리를 맡는 등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34] 이처럼 '일거리가 많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 천주교회사를 편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루세이유를 대신하여 다블뤼 문서의 정리 작업을 했었던 달레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리델은 달레에게 보낸 1871년 3월 4일자 서한에서 '조선 역사(조선 천주교회사)'의 진척 상황을 물었다.[35] 이 자료도 달레가 조선 천주교회사 편찬 작업을 시작한 것이 1872년이 아니라 그 이전이었음을 뒷받침한다. 페롱이 루세이유에게 보낸 서한으로 추정하면, 달레는 1868년경부터 조선 천주교회사를 편찬하였다.

2) 편찬 과정과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과의 교류

달레는 다블뤼의 작업을 이어받은 것이었으므로 조선 천주교회사를 편찬하는 데에 다블뤼의 비망기에 크게 의존하였다. 『한국천주교회사』 서설의 3분의 2, 본문의 제1편(프랑스어 원서의 상권) 대부분, 제2편(하권)의 5분의 1 이상이 다블뤼의 비망기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거나 참고한 것이다.[36] 달레

33) A-MEP: Vol.579, f.1419.
34) A-MEP: Vol.579, f.1372.
35) A-MEP: Vol.579, f.1747.
36) 최석우, 앞의 글, 1981, 146-147면.

는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의 서한, 중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던 서양인들이 작성한 글 등도 참고하였다. 또한 리델의 지도, 프랑스 해군성의 지도 등을 참고하여 조선 지도를 만들어 『한국천주교회사』에 수록하였다.[37]

이처럼 달레는 여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자료만을 읽고 조선 천주교회사를 편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을 방문한 경험조차 없는 그가 조선의 제도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달레는 도움을 받기 위해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과 연락을 취하였다. 파리외방전교회 문서철 Vol.579와 Vol.580에는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이 달레에게 보낸 서한이 남아 있다.[38] 문서철에 수록된 서한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이 달레에게 보낸 서한

No	작성자	작성 날짜	작성 장소	주요 내용	수록 문서철
①	페롱	1867.5.15	중국 상해	다블뤼의 문서 정리를 담당한 달레에게 감사	Vol.579, ff.1335-1337b
②	페롱	1870.1.6	프랑스 파리	달레가 가지고 있는 리델의 조선어 문법서를 보내주길 희망	Vol.579, ff.1711-1713
③	페롱	1870.1.28	프랑스 파리	조선어 문법서와 관련하여 달레의 답신을 기다림	Vol.579, ff.1722-1725
④	리델	1871.3.4	프랑스 반느	조선 천주교회사의 진척 상황을 물음	Vol.579, ff.1746-1748b
⑤	칼레	1873.7	독일 베네스트로프[39]	달레가 문의한 조선의 관직명, 노비제도 등을 설명	Vol.579, ff.1801-1804
⑥	칼레	1873.8.18	독일 베네스트로프	조선어 자음의 프랑스어 표기에 관해 설명	Vol.579, ff.1805-1806b

37) 『한국천주교회사』상, 26면. 참고로 한글 번역서 『한국천주교회사』에는 조선 지도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38) Vol.579와 Vol.580은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이 남긴 문서 모음이므로 달레가 작성한 서한은 없다. 파리외방전교회에 있는 달레 관련 자료도 조사하였지만 조선 천주교회사 편찬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39) 베네스트로프(Bénestroff)는 프랑스 모젤(Moselle) 지역의 도시이다. 로렌(Lorraine)에 속한

No	작성자	작성 날짜	작성 장소	주요 내용	수록 문서철
⑦	칼레	1874.2.17	독일 베네스트로프	달레의 책『야만의 바나르족』을 보내준 것에 감사	Vol.579, ff.1812-1813
⑧	리델	1874.6.8	중국 차쿠[40]	조선어 사전과 문법서의 인쇄를 돕겠다는 달레의 제안을 수락	Vol.579, ff.1828-1833a
⑨	리델	1875.5.12	중국 차쿠	『한국천주교회사』를 받았고, 인명과 철자 오류를 확인	Vol.580, ff.29-32
⑩	리델	1876.4.26	중국 차쿠	조선어 문법서의 완성을 알림	Vol.580, ff.75-77b
⑪	리델	1877.8.6	중국 차쿠	중국을 방문하는 달레를 만나기를 기대함	Vol.580, ff.230-231
⑫	코스트	1877.8.8	중국 양관	리델의 지시에 따라 달레를 안내하기 위해 양관에 옴	Vol.580, ff.232-233
⑬	리델	1877.8.15	중국 차쿠	건강이 악화된 달레가 오지 못하게 된 것에 안타까움	Vol.580, ff.234-236

문서철에는 1867년부터 1877년까지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이 달레에게 보낸 서한이 총 13통이 실려 있다. 발신자는 페롱, 리델, 칼레, 코스트(E.J.G. Coste, 高宜善) 등 4명이다. 리델이 6통으로 가장 많았고, 페롱과 칼레가 각각 3통, 코스트가 1통이다. 달레와 가장 먼저 교신한 선교사는 페롱이었고, 그 뒤로는 칼레, 리델 순이었다.

모젤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후인 1871년 독일에 합병되었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 패배로 끝나면서 1918년 이후 다시 프랑스 영토가 되었다. 그러니까 칼레가 서한을 작성했을 당시 베네스트로프는 독일 영토였다. 칼레는 1869년 프랑스에 귀국한 후 파리외방전교회를 탈회하여 트라피스트 회원이 되고자 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그러지 못했다. 고향인 로렌으로 돌아간 그는 1874년경부터 4년간 베네스트로프의 본당 신부로 사목하였다(칼레가 달레와 서신 교환을 한 것은 베네스트로프의 본당 신부가 되기 전이었다). 칼레는 1878년 본당 사목을 끝내고 트라피스트 회원이 되었다(「조선 포교지에서 트라피스트 수도원까지 마리 칼레 신부(1833-1884)」,『교회와 역사』 119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5, 4-5면).

40) 1866년 중국으로 피신한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은 1868년 만주대목구장 베롤(E.J.F. Verrolles, 方濟各)의 제안을 받아들여 차쿠의 '눈의 성모성당(聖母雪之殿; Notre Dame des Neiges)'의 재치권을 맡았다. 요동에 있는 차쿠(岔溝, 현 장하시 용화산 근방)는 조선 해안과 가까워서 조선 입국을 시도하기에 유리한 곳이었다(A-MEP: Vol.579, f.1584).

페롱의 첫 번째 서한(①)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자. 이 서한은 달레가 조선 천주교회사 편찬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한 것이지만, 교회사와 관련이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페롱은 달레가 다블뤼의 문서를 정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알려주었다. 그것은 북경교구장 구베아(A. de Gouvea, 湯士選)가 사천대목구장 생 마르탱(J.D. de Saint Martin)에게 보낸 1797년 8월 15일자 서한이었다. 구베아가 자신이 조선에 파견한 중국인 선교사 주문모(周文謨)의 서한과 조선 신자들의 보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1784년 이승훈(李承薰)의 영세(領洗)부터 1797년까지, 그러니까 조선 천주교회 설립 초기의 역사에 관한 글이었다.[41] 페롱은 달레에게 이 서한을 참고하라고 했다. 하지만 다블뤼의 문서가 '훨씬 더 명확하고 완전'하니 그것을 따르라고 했다. 또한 그는 한자의 발음이 조선과 중국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순교자의 이름을 조선어 발음으로 표기한 다블뤼의 문서를 따르라고 했다. 조선 이름의 성(姓) 발음을 조선어, 중국어, 프랑스어로 병기하여 달레가 참고하도록 했다.

페롱은 1870년 1월에 2통의 서한을 달레에게 보냈다. 그는 1868년 5월(음 4월)에 있었던 '남연군 묘 굴총 사건'(덕산사건)에 가담한 것이 문제가 되어 중국을 떠나 프랑스에 머물고 있었다.[42] 페롱의 두 번째 서한(②)은 리델의 조선어 문법서에 관한 것이었다. 리델은 선교사들이 진행하다가 병인교옥으로 중단한 조선어 사전 작업을 이어받았다.[43] 그는 동료 선교사들과 조선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 1867년 2월경에 조선어 문법서의 초고, 3월경에 조선어-프랑스어 사전의 초고를 완성하였다.[44] 달레는 게랭(Guerrin)[45]을 통해

41) 생 마르탱은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였다. 그가 구베아에게서 받은 서한은 A-MEP: Vol.579, ff.1-30에 있다. 구베아 서한의 한글 번역문은 『교회사연구』8, 한국교회사연구소, 1992, 188-204면을 참고할 것.

42) 남연군 묘 굴총 사건과 페롱에 관해서는 조현범, 앞의 글, 2017을 참고할 것.

43) 다블뤼는 조선어-중국어-프랑스어 사전, 성 요셉 신학교의 푸르티에(J.A.C. Pourthié, 申妖案)는 라틴어-조선어-중국어 사전, 프티니콜라(M.A. Petitnicolas, 朴德老)는 라틴어-조선어 사전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이 선교사들은 병인교옥 때 처형되었고, 그들의 사전도 압수되어 소각되었다(『한국천주교회사』상, 137면; 『베르뇌 주교 서한집』상, 429면).

44) 리델 원저, 한국교회사연구소 번역위원회 역주, 『리델 문서』I,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193면, 197면.

문법서를 입수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페롱이 달레에게 서한을 보냈다. 페롱이 문법서를 언급한 이유는 그도 프랑스어-조선어 사전을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46] 그는 달레의 조언을 받아 자신의 작업이 상당히 진척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법서를 보내준다면 자신의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페롱은 새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달레와의 공동 작업으로 사전을 완성하려 했다.[47] 그러나 달레의 답장이 늦어지면서 페롱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③). 1870년 1월 이후에 페롱과 달레의 협업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다. 1870년 7월 페롱은 인도의 퐁디셰리(Pondichéry)로 파견되었고, 달레도 1871년에 프랑스를 떠나면서 이 둘 간의 교신은 더 이상 없었던 것 같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달레는 1868년경부터 조선 천주교회사 편찬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달레는 1871년에 남북 아메리카 방문을 위해 교회사 편찬을 중단해야 했다. 순회의 목적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1870-71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파리외방전교회에 대한 원조를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달레는 원조 호소 외에도 캐나다 퀘백(Québec)에 있는 라발(Laval)대학교의 중일(中日) 박물관 설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48] 이는 달레가 동아시아에 관심이 컸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프랑스에 돌아간 달레는 조선 천주교회사 편찬을 재개하였다. 그는 도움을 받기 위해 1873년 칼레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 당시 칼레는 건강 악화로 프랑스에 귀국한 상태였다. 그는 1870년 파리외방전교회를 탈회하였지만[49] 달레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칼레는 첫 번째 서한(⑤)에서 달레가 궁금해하는 조선의 관직명과 노비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조선의 관직명이 중국의 관직명에서 따온 것이고 그 중의 몇몇은 문서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비제도는 실제로 존재하며 여자 쪽으로 세습된다고 했다. (양인) 남자와 노비 여자가 혼인하더라

45)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의 지도자 게랭(C.L. Guerrin)으로 추정된다.
46) 『불한사전(Dictionnaire Français-Coréen)』,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47) A-MEP: Vol.579, ff.1727-1728.
48) Adrien Launay, Op. cit., p.169.
49) 파리외방전교회 홈페이지(https://irfa.paris/missionnaire/0779/) 참고(2022.3.12. 검색).

도 남자는 노비가 되지 않으며 그 아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양천교혼(良賤交婚)을 말하고 있는데, 노비제도가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설명하였다. 칼레는 두 번째 서한(⑥)에서 조선어에 관해 설명하였다. 달레는 조선어 문법서를 가지고 조선어를 연구하면서 궁금한 점을 칼레에게 물었다. 칼레는 'ㄹ'자는 R 혹은 L로 발음하고 위치에 따라 발음이 다르다고 했다. 조선어 단자음(單子音)과 유성자음(有聲子音)의 프랑스어 표기도 설명하였다.

달레는 이처럼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과 교신하면서 조선 천주교회사 편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페롱이 알려준 구베아의 서한을 교회 설립 초기 역사를 정리할 때 중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칼레가 설명한 관직, 노비 등 조선의 제도에 관한 정보는 교회사 서설을 작성할 때 참고했을 것이다. 달레가 특히 선교사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것은 조선어였다. 다블뤼의 비망기에는 조선어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델의 조선어 문법서, 페롱과 칼레의 설명은 그가 서설의 '조선어' 항목을 작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서한에는 나오지 않지만, 달레는 1866년 병인교옥 당시 조선의 상황을 정리할 때도 페롱, 칼레, 리델의 서한과 보고서를 주로 참고하였다.[50]

1874년『한국천주교회사』출간 이후에도 달레는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과의 연락을 이어나갔다. 그가 주로 연락한 이는 조선대목구장 리델이었다. 리델은『한국천주교회사』의 출간 전부터 달레의 조선 천주교회사 편찬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주교로 서품된 후 프랑스 반느(Vannes)에 잠시 있었을 때인 1871년에 달레에게 서한을 보내 조선 천주교회사의 진척 상황을 물었다(④). 1874년에『한국천주교회사』를 받은[51] 리델은 지명과 인명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⑨).

달레와 리델은 조선어 사전 및 문법서와 관련하여서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1873년 말, 달레는 리델에게 사전과 문법서의 인쇄를 돕겠다고 했다. 그가

50) 최석우, 앞의 글, 1981, 146면, 159면.
51) 리델은 캐나다 몬트리올의 생 쉴피스회 신학교 신부에게 보낸 1874년 10월 24일자 서한에서『한국천주교회사』를 언급하였다(A-MEP: Vol.579, ff.1844-1845).

이러한 제안을 했던 이유는 1860년 프랑스 국립 인쇄소에서 인도 남부의 언어인 카나라(Canara)어와 텔루구(Télougou)어의 인쇄를 맡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52] 리델은 감사를 표하면서 상해에서 시험 삼아 인쇄한 견본 등을 달레에게 보냈다(⑧). 달레는 파리에서 인쇄 작업을 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리델은 인쇄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설명하였고 필사본을 보내겠다고 하였다(⑨). 그러나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파리에서의 인쇄 작업이 실행되진 못하였다. 리델은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코스트에게 문법서와 사전의 인쇄를 맡겼고, 1880년에 『한어문전(Grammaire Coréenne)』, 1881년에 『한불자전(Dictionnaire Coréen-Français)』를 간행하였다.

달레는 파리외방전교회 역사를 집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문서와 자료를 보충하고 새로운 자료를 구할 목적으로 1877년 2월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지역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는 일본, 만주, 북경 등지를 방문하였고, 그 기회에 리델을 비롯한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을 만나려 했다.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도 그와의 만남을 기대했다(⑪-⑬). 그러나 달레는 병환으로 만주를 방문하지 못했다. 그는 코친차이나(Cochinchine)를 거쳐 서부 통킹(Tong-king)에 머물다가 1878년 4월 25일에 사망하여 그 지역의 선교사 묘지에 묻혔다.[53]

3. 『한국천주교회사』 한글 번역

1876년 5월 10일 블랑(M.J.G. Blanc, 白圭三)과 드게트(V.M. Deguette, 崔東鎭)가 서울에 도착하였다.[54] 1866년 이후 10년 만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한 것이었다. 선교사들은 오랜 금압(禁壓)으로 인해 붕괴 상태였던 조선 천주교회의 재건에 노력했다. 교회 서적의 간행도 재건 움직임의 일환이었다. 1866년에 중단된 교회 서적 간행은 1879년부터 재개되었다. 블랑은 최우정에게 간행 작업을 지시하였다. 일본에서도 코스트가 교회 서적을

52) Adrien Launay, Op. cit., p.169.
53) Adrien Launay, Op. cit., p.169.
54) A-MEP: Vol.580, ff.93-103b.

간행하였다. 코스트는 1885년 11월 조선에 입국하면서 인쇄 기기를 서울로 옮겨왔다.[55]

블랑은 『한국천주교회사』의 중국어 번역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조선 신자들이 '그들 교회의 영광스러운 기원'과 '신앙 선조인 순교자들과 증거자들의 영웅적이고 명예로운 행동'을 몰랐으므로[56] 이를 알리기 위해 『한국천주교회사』의 한글 번역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는 파리외방전교회 상해대표부의 마르티네(J.B. Martinet)에게 1885년 5월 16일자 서한을 보내 『한국천주교회사』의 중국어 번역서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중국어 번역서를 한글로 옮기는 것이 쉽다고 생각해서였다.[57]

블랑이 요청한 『한국천주교회사』의 중국어 번역서는 『고려주증』('新錄高麗主證'이라고도 함)이었다. 표제는 '고려(Corée, 조선)의 순교자들이 천주(天主)를 증거함'이라는 뜻이다. 번역자는 예수회 소속 중국인 신부 은정형(殷正衡)이고, 1879년에 10권 5책으로 편찬되었다고 알려져 있다.[58]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 또한 『고려주증』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고려주증』에 관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한국천주교회사』의 중국어 번역자인 은정형은 예수회 중국인 신부가 아니라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바쟁(S.M. Bazin)이다. 은정형은 바쟁의 중국 이름이다. 바쟁은 1865년부터 1914년까지 중국 광주(廣州), 귀주(貴州), 광서(廣西) 등지에서 활동하였다.[59] 그는 『한국천주교회사』에 중국 신자들의 모범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책을 중국어로 번역하기로 하고 중국 신자 진광형(陳光瑩)[60]에게 그 일을 맡겼다. 바쟁이 설명하면 진광

55) 장동하, 「개항기 조선교구 인쇄소 연구」, 『가톨릭 신학과 사상』57, 신학과사상학회, 2006, 152-185면.
56) A-MEP: Vol.581, ff.86.
57) A-MEP: Vol.580, ff.1318-1319.
58) 편찬실, 「고려주증」, 『한국가톨릭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408-409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인터넷 사전) 등의 설명도 이와 같다.
59) *COMPTE RENDU,* Séminaire des Missions Étrangères, 1915, p.204
60) 「高麗主證序」, 『高麗主證』, 重慶 公義書院, 1900, 1가-2가. 한편, 파리외방전교회 연보에 실린 바쟁

형이 '재량껏 헤아려' 그 대략(大略)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878년 9월 22일(음)에 시작하여 1879년 2월(음)에 끝냈다. 3월(음)부터는 베껴 적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한 뒤, 9월 중순(음)에 책을 완성하였다.[61] 『고려주증』은 1900년 귀주대목구장(貴州代牧區長) 기샤르(F.M. Guichard, 易德謙)와 천동대목구장(川東代牧區長) 슈블롱(C.F.J. Chouvellon, 舒福隆)의 감준을 받아 중경 공의서원에서 활판본 5권 2책으로 간행되었다.[62]

『고려주증』은 『한국천주교회사』의 내용을 토대로 했지만, 편찬 체재가 다르다. 『한국천주교회사』는 조선 천주교회 전사(前史)부터 1866년 병인교옥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정리한 통사이다. 하지만 『고려주증』은 순교자 329명의 전기(傳記)이다. 1권-4권은 신자 315명의 전기이고, 5권은 주교와 신부 14명의 전기이다. 바쟁이 편찬 체재를 바꾼 이유는 『고려주증』의 「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는 「서」에서 성인전(聖人傳)인 『성년광익(聖年廣益)』[63]을 언급하였다. 바쟁은 이 책에 실린 성인과 성녀가 각국 각지의 사람이고, 순교 시기가 매우 오래되었다고 했다. 반면, 조선 천주교회 순교자들은 '건륭(乾隆) 연간부터 도광(道光)까지', 즉 최근에 치명하였다고 했다.[64] 바쟁은 조선이 중국과 가까워 친근한 데다가 최근에 순교한 조선 신자들의 생애가 『성년광익』의 성인・성녀보다도 중국 신자들에게 좀 더 모범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바쟁은 『한국천주교회사』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순교자 전기로 편찬하였다.

의 약전에는 'Tchen-chouy-tang'의 도움을 받아 달레의 책을 번역하였다고 되어 있다(*COMPTE RENDU,* 1915, p.204). 진광형과 Tchen-chouy-tang이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61) *COMPTE RENDU,* 1915, p.204; 「高麗主證序」, 『高麗主證』, 1가-2가.

62) 기샤르의 생애와 관련해선 파리외방전교회 홈페이지(https://irfa.paris/missionnaire/0864/), 슈블롱의 생애와 관련해선 (https://irfa.paris/missionnaire/1180/)을 참고할 것(2022.3.20. 검색).

63) 『성년광익』은 1년 365일 동안 매일 그날에 세상을 떠난 성인・성녀들의 전기이다. 한문본은 두 가지 판본이 전해지는데, 프랑스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드 마이야(de Mailla, 馮秉正)의 역술(譯述)로 1738년에 초간된 책과 저자와 간행 연도를 알 수 없는 책이다. 드 마이야는 신자들이 성인들을 본받아 신심을 높이길 바라는 목적으로 이 책을 펴냈다. 드 마이야의 『성년광익』은 1815년, 1875년 등 여러 차례 재간행되었다. 황사영의 「백서(帛書)」, 박종악의 『수기(隨記)』 등을 통해 『성년광익』은 조선 천주교회 설립 초기에 전래되어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방상근, 「『성년광익』의 서지 연구」, 『성년광익(영인본)』,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6-16면).

64) 「高麗主證 原序」, 『高麗主證』, 7가-8가.

이처럼 『한국천주교회사』는 중국에 전해졌고, 그 내용을 토대로 순교자 전기가 만들어졌다. 『고려주증』은 조선 천주교회에 알려졌고, 블랑은 한글 번역을 위해 이 책을 입수하였다.[65] 이후에 블랑이 어떠한 작업을 진행했는지는 몇몇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꾸랑(M. Courant)은 조선 신자의 보고서에 '블랑 주교의 지도 아래 한자로 쓰여졌다'고 했다.[66] 이는 블랑이 선교사 혹은 신자에게 『고려주증』을 필사하도록 했음을 말해준다.

문일평(文一平)의 글에서도 『고려주증』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 1874년 갑술에 파리에서 간행한 딸레의 교회사 2책은 조선에 관한 구문(歐文) 저서 중에 권위 있는 명저(名著)로서 일찍부터 세인(世人)의 진중(珍重)하는 바 되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초역(抄譯)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명칭을 붙이었으나 수년 전에 성대(城大) 후원 아래 경성천주교당(京城天主教堂)에서 천주교 사료 전람회를 개최하였을 때 동(同) 교회 소장(所藏)에 계(係)한 딸레 교회사의 역본(譯本) 기종(幾種)이 있었다.
>
> 그 역본을 대별(大別)하면 두 종(種)에 나눌 수 있으니 하나는 한역(漢譯)이오, 또 하나는 조역(朝譯)이다. 사료 전람 목록에 의하면 딸레 교회사를 간행하던 그 당시 중국 남경천주교당(南京天主教堂)에 있던 불란서 승려(僧侶) '푸갈' 등이 한역한 것으로 출판하려다가 성취하지 못하고 사본(寫本) 채로 보존된 바 그 서명은 신록 고려주증(新錄 高麗主證)이라 한 바 전부 5책으로 되었다.[67]

문일평은 경성 천주교당(현 명동 주교좌성당)에서 열렸던 천주교 사료 전람회에 참석했던 것 같다. 전람회에는 경성 천주교당에 소장된 『한국천주교회사』의 중국어 번역서와 한글 번역서가 전시되었다. 전람회 목록에는 중국어 번역서, 즉 『고려주증』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번역자는 바쟁이지만, '중국 남경천주교당에 있던 불란서 승려 푸갈'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 '출판하려다가 성취하지 못하고 사본 채로 보존'되고 있다는 내용이 주목된다. 이는 블랑이 『고려주증』의 간행을 계획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간행되지 않았

65)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된 『고려주증』 필사본 1권에는 '+JgBlanc Evêq d antig'이라 쓰여 있는데, 해석하면 '안티곤(Antigone) 명의주교(名義主教) 블랑'이다.
66) 모리스 꾸랑 원저, 이희재 번역, 『한국서지(수정번역판)』, 일조각, 1997, 702-703면.
67) 문일평, 「102. 딸레의 교회사」, 『史外異聞祕話』, 조광사, 1946, 116면.

고, 사본만 남겨져 경성 천주교당에 보관되고 있었다.[68]

『고려주증』이 간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고려주증』의 내용상 오류 때문이었을 것이다. 원서인 『한국천주교회사』에도 인명과 지명의 철자 오류가 있었다.[69] 중국 천주교회 선교사와 신자가 번역한 『고려주증』에는 더 많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덕조(李德祚, 이벽)는 李德祖, 이승훈(李承薰)은 李承訓, 윤지충(尹持忠)은 尹之聰, 최필공(崔必恭)은 崔筆工 등이 그 예였다. 블랑은 『고려주증』을 검토하면서 이 같은 오류를 확인했을 것이다. 한글 번역문이 실린 「보감(寶鑑)」에 인명이 정확하게 표기되었다는 점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한국천주교회사』의 한글 번역이 추진되면서 『고려주증』을 번역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선교사들이 『한국천주교회사』의 한글 번역을 시작한 것은 1885년경으로 추정된다. 1931년경에 열린 천주교 사료 전람회 목록에는 1885년 선교사들이 번역하였다고 되어 있다.[70] 또한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성교사기(朝鮮聖教史記)』2에는 'Robert. A miss ap en Corée le 22 Juillet 1885 을유 六月十二日', 번역하면 '교황 파견 선교사 로베르 1885년 7월 22일 을유 6월 12일'이라고 쓰여 있다. 1885년경부터 원서인 『한국천주교회사』가 한글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고려주증』을 굳이 번역[重譯]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조선 천주교회 프랑스 선교사들이 『한국천주교회사』의 한글 번역을 맡았다. 번역을 전담한 선교사는 없었고, 선교사들이 지방에서 성무 집행 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번역하였다. 알려진 번역자는 로베르(A.P. Robert, 金保祿), 리우빌(L.N.A. Liouville, 柳達榮), 푸아넬(V.L. Poisnel, 朴道行) 등이었다.[71] 여기에 보두네(F.X. Baudounet, 尹沙勿)가 추가된다.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성교사기(조선성교일기)』[72]의 겉표지에는 'Traduit par le P.

68) 꾸랑의 『한국서지』에도 『고려주증』이 '지금까지 간행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모리스 꾸랑 원저, 이희재 번역, 앞의 책, 703면).
69) A-MEP: Vol.580, ff.31-32.
70) 다레 저, 이능식·윤지선 공역, 『조선교회사 서설』, 대성출판사, 1947, 1-2면.
71) 문일평, 앞의 글, 116면; 다레 저, 이능식·윤지선 공역, 위의 책, 2면.

Baudounet Avril 1901(1901년 4월 보두네에 의해 번역되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번역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 번역서의 제목도 '조선성교회사적(朝鮮聖教會事蹟)', '국사보감(國史寶鑑)', '대한치명일기(大韓致命日記)', '조선성교사기(朝鮮聖教史記)', '사해오편(史解五篇)' 등으로 다양했다.[73]

로베르 등은 1885년경부터 『한국천주교회사』를 번역하였다. 블랑은 파리외방전교회 지도 신부들에게 보낸 1886년 8월 1일자 서한에서 한글 번역이 거의 끝났고, 검토와 수정만 하면 된다고 했다.[74] 그는 지도 신부들에게 보낸 1887년 9월 8일자 서한에서도 한글 번역을 거의 마쳤고 그해에 인쇄할 수도 있을 것이라 했다.[75] 그러나 보고와는 달리 『한국천주교회사』의 번역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로베르는 파리외방전교회 상해대표부의 마르티네에게 보낸 1889년 12월 29일자 서한에서 『한국천주교회사』의 번역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76] '1901년 4월 보두네에 의해 번역되다'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한글 번역은 190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다. 이 한글 번역문은 1906년부터 「보감」에 연재되었다. 정리하자면, 『한국천주교회사』의 한글 번역 기간은 1885년경부터 1900년대 초까지였다.

한글 번역서는 모두 13책의 필사본이다.[77] 선교사들은 『한국천주교회사』의 서설과 본문 중에서 본문만 번역하였다. 한글 번역의 목적이 조선 신자들에게 천주교회사를 알리는 것이므로 서설을 번역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한글 번역서는 『한국천주교회사』의 편찬 체재를 따른다는 점에서 『고려주증』과 달랐다. 천주교회의 설립, 천주교 금압의 배경과 과정 등을 자세히 알기 위해선 순교자 전기보다는 원서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한글 번역서가 만들어졌지만, 출간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조선 천주교회에

72) 겉표지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표제는 '조선성교사기'로만 되어 있다. 본문 첫 번째 장에는 '조선성교일기'라 되어 있다.
73) 「『한국천주교회사』 번역본」, 『교회와 역사』43, 1면.
74) A-MEP: Vol.580, f.1449.
75) A-MEP: Vol.581, f.86.
76) A-MEP: Vol.581 f.422.
77) 「『한국천주교회사』 번역본」, 『교회와 역사』43, 1면.

서 발행하는 「경향신문(京鄕新聞)」의 부록 「보감」 1906년 10월 19일부터 '대한성교사기(大韓聖教史記)'라는 이름으로 연재되었다. '대한성교사기'는 1911년 1월 15일부터 명칭이 '조선성교사기'로 바뀌었다. '조선성교사기'는 『경향잡지』269호(1913.1.15.)까지 연재가 되었고, 『경향잡지』278호(1913.5.31)에는 '성교사기 참고건'이 실렸다.[78] 번역서는 인명이나 지명 등이 순한글로 표기되었지만, 연재 기사에는 한자로 표기되었다. 오기(誤記)가 많고, 편집자가 기사에 주해(註解)를 넣어 혼란을 주는 문제점이 있었다.[79]

『한국천주교회사』는 1956년 6월호부터 『경향잡지』에 '대한성교사기'라는 제목으로 다시 연재되었다. 변화된 철자법에 따라 표기를 수정하였고, 주석의 역할을 하는 '역자의 말'도 덧붙였다. 처음 연재가 시작하였을 때는 역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59년 7월호에 역자가 불문학자 안응렬임을 밝혔다. 옛 '대한성교사기'와 마찬가지로 서설을 제외하고 본문만 실었다. 본문도 모두 연재된 것이 아니라 1974년 8월호에 하권(총 5편) 3편 6장의 내용에서 중단되었다.[80] 『한국천주교회사』의 번역서 출판을 위해 연재가 중단되었던 것 같다.

한편, 천주교회 밖에서는 서설만을 번역한 서적들이 간행되었다. 서양인(프랑스인)이 조선의 제도와 문화를 상세히 서술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이를 소개하고자 한글로 번역한 것이었다. 1947년에 이능식과 윤지선 공역의 『조선교회사 서설』(대성출판사), 1966년에 정기수 번역의 『조선교회사 서론』(탐구당)[81] 등이 그러한 서적들이었다. 서설만을 번역한 외국어 서적들도 있었다. 일본어의 경우, 1876년에 메이지정부 관리인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에 의해 『조선사정(朝鮮事情)』이란 이름으로 출간되었다.[82] 1979년에는

78) 「경향신문」은 총독부의 압박으로 인해 1910년 12월 30일자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천주교회는 1911년 1월 15일자로 「보감」을 격주간 종교잡지인 『경향잡지(京鄕雜誌)』로 변경하여 발행하였다.
79) 「『한국천주교회사』 번역본」, 『교회와 역사』43, 1면.
80) 「대한성교사기」, 『경향잡지』1277호, 1974.8, 92-94면. 3편 6장의 제목은 '글로와르(la Gloire) 호와 빅토리외즈(la Victorieuse) 호가 조선 연안에서 난파-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입국-최(양업) 신부의 초기 선교활동-조선 선교지의 현황'이다.
81) 이 책은 2015년에 『벽안에 비친 조선국의 모든 것: 조선교회사 서론』이란 이름의 개정판으로 출간되었다.

김용권(金容權)의 일본어 번역서 『조선사정(朝鮮事情)』(平凡社)이 간행되었다.

이처럼 『한국천주교회사』는 목적에 따라 서설 혹은 본문만 번역되었다. 『한국천주교회사』의 한글 번역서는 1981년에 처음으로 완역되었다. '대한성교사기'의 번역자인 안응렬이 한국교회사연구소 최석우와 역주한 『한국천주교회사』상・중・하가 1979-1981년에 간행되었다. 이 책은 처음으로 서설과 본문을 완역한 서적이었다.

이렇게 한국에 전해지고 번역된 『한국천주교회사』는 천주교회사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천주교회사』에 수록된 자료들은 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 책의 시기 구분과 편목(編目)은 천주교회사 통사의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 1924년 파리외방전교회가 간행한 『한국 천주교-그 기원과 발전』에서 1866년까지의 내용은 달레의 책을 거의 그대로 요약한 것이다.[83] 1931년 신자 단체인 경성교구 천주교 청년회 연합회가 펴낸 『조선 천주공교회 약사(朝鮮天主公教會略史)』도 『한국천주교회사』의 목차와 내용을 참고하였다.[84] 1949년에 출간된 사학자 류홍렬의 통사인 『조선천주교회사』(상권)에도 마찬가지였고,[85]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 편찬 배경과 시기, 편찬 과정에서 달레와 조선 천주교회 선교사들과의 교류, 간행된 후 조선에 유입되어 한글로 번역됨을 살펴보았다. 『한국천주교회사』 편찬에서 번역에 이르기까지의

82) 신영언, 「Claude Charles Dallet 저 『한국천주교회사』의 일본에서의 수용—榎本武揚의 『朝鮮事情』(1876) 번역 의도」, 『일본언어문화』21,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2.

83) 프랑스어 서적으로 원제는 *Le Catholicisme en Corée-son origine et ses progrès*-이다. 이 책의 해제와 원문은 『교회사연구』38, 한국교회사연구소, 2012.6, 161-352면을 참고할 것. 이 책의 번역서로는 파리외방전교회 지음, 김승욱 옮김, 『조선 천주교 그 기원과 발전』, 살림, 2015가 있다.

84) 경성교구 천주교 청년회 연합회 편, 『조선 천주공교회 약사』, 1931. 이 책의 해제와 원문은 『교회사연구』21, 한국교회사연구소, 2003.12, 159-231면을 참고할 것.

85) 류홍렬은 『조선천주교회사』 하권도 발간하려 했으나,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중단하였다. 그러다가 1962년에 『한국천주교회사』를 간행하였다.

전(全) 과정이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자료와 서양인들의 문서를 수집・정리하여 프랑스로 보낸 이는 다블뤼였다. 다블뤼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조선 천주교회사를 정리하고 책으로 펴낸 이는 달레였다. 달레의 책이 프랑스에서 발간되자, 이를 입수하여 처음 한글로 번역한 이는 로베르를 비롯한 선교사들이었다.

자국(自國)의 역사임에도 조선 천주교인들은 『한국천주교회사』의 편찬과 번역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조선 천주교회의 성직자, 즉 주교와 신부가 프랑스 선교사였다는 점이 그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다블뤼가 교회사를 저술을 시작한 1856년 당시에 조선인 신부는 최양업(崔良業)이 유일했다. 『한국천주교회사』가 조선에 전해져 한글 번역이 시작된 1880년대에는 조선인 신부가 1명도 없었다.[86] 조선 천주교회의 주요 활동은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되었다. 교회사 편찬과 번역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신자들은 단지 그들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한국천주교회사』에 대해 연구를 해보았다. 향후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맺도록 하겠다.

『한국천주교회사』의 내용을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달레는 다블뤼의 자료(비망기 등)를 주로 참고하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한국천주교회사』를 펴냈다. 기존 연구에서 이 책의 내용 분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다블뤼 비망기와 달레의 글을 면밀히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 다블뤼 비망기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도 달레의 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달레의 글에서 보이는 서술상의 특징이나 달레의 조선 인식 등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천주교회사』와 다블뤼 비망기를 대조 검토하면서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현재 다블뤼 비망기의 한글 번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

86) 1861년 최양업이 병사한 이후 1896년 4월 26일 강도영, 정규하, 강성삼이 사제품을 받을 때까지 조선인 신부는 없었다.

『한국천주교회사』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로도 번역되었다. 일본어가 있었고, 네덜란드어로 번역되었으며, 일부는 유럽어로 옮겨졌다.[87]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한국천주교회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고려주증』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언어의 번역서가 간행되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천주교회사』의 번역서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외국인의 조선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다. 이에 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87) 조광, 앞의 글, 79면.

▮ 참고문헌

『경향잡지』
경성교구 천주교 청년회 연합회 편, 『조선 천주공교회 약사』, 1931.
다레 저, 이능식・윤지선 공역, 『조선교회사 서설』, 대성출판사, 1947.
리델 원저, 한국교회사연구소 번역위원회 역주, 『리델 문서』I,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모리스 꾸랑 원저, 이희재 번역, 『한국서지(수정번역판)』, 일조각, 1997.
문일평, 「102. 딸레의 교회사」, 『史外異聞祕話』, 조광사, 1946.
샤를르 달레 원저,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상・중・하,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1981.
샤를르 달레 저, 정기수 역, 『조선교회사 서론』, 탐구당, 1966.
수원교회사연구소, 『페레올 주교 서한』, 천주교 수원교구, 2012.
파리외방전교회 지음, 김승욱 옮김, 『조선 천주교 그 기원과 발전』, 살림, 2015.
파리외방전교회(A-MEP) 문서 조선 관계 문서철(Vol.579-Vol.581).
한국교회사연구소 역, 『베르뇌 주교 서한집』상・하,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榎本武揚 重譯, 『朝鮮事情』, 集成館, 1876.
『高麗主證』, 重慶 公義書院, 1900.
金容權 譯, 『朝鮮事情』, 平凡社, 1979.
Adrien Launay, *Mémorial de la Société des Missions-Étrangères, Deuxième Partie*, Séminaire des Missions Étrangères, 1916.
CH. Dallet,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Victor Palmé, 1874.
COMPTE RENDU, Séminaire des Missions Étrangères, 1915.
https://irfa.paris/ (파리외방전교회 홈페이지).

가톨릭대 신학대학 150년사 편찬위원회 편,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 가톨릭대 신학대학, 2007.
김규성, 「조선 천주교회의 순교자 관련 기록 연구」, 서강대 사학과 박사논문, 2017.
김수태, 「샤를르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 『교회사연구』4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6, 7-55면.
김정숙, 「대구 순교자들에 관한 사료 분석—프랑스어 사료를 중심으로—」, 『대구 순교사 연구—시복 시성을 위한 연구 논문—』, 천주교 대구대교구, 2001, 23-80면.
_____, 「신유박해에 관한 프랑스어 자료 분석—달레와 다블뤼의 자료 비교—」, 『신유박해 연구의 방법과 사료』,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3, 331-440면.
방상근,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 내포교회사연구소, 2018.
_____, 「『성년광익』의 서지 연구」, 『성년광익(영인본)』,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5-16면.
신영언, 「Claude Charles Dallet 저 『한국천주교회사』의 일본에서의 수용—榎本武揚의 『朝鮮事情』(1876) 번역 의도」, 『일본언어문화』21,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2, 341-362면.
이은령, 「『한어문전』의 문법 기술과 품사 구분-문화 소통의 관점에서 다시 보기」, 『프랑스학 연구』56, 프랑스학회, 2011, 177-210면.

장동하,「개항기 조선교구 인쇄소 연구」,『가톨릭 신학과 사상』57, 신학과사상학회, 2006.12, 152-185면.
조 광,「우리 교회사의 보배로운 기록—한국천주교회사—」,『경향잡지』1500호, 경향잡지사, 1993.3, 76-79면.
조현범,「황사영 백서 불역본에 관한 연구」,『교회사학』12, 수원교회사연구소, 2015, 213-245면.
_____,「덕산 사건과 프랑스 선교사 페롱」,『정신문화연구』40-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61-91면.
최석우,「달레 저 한국천주교회사의 형성 과정」,『교회사연구』3, 한국교회사연구소, 1981, 113-159면.
_____,「Dallet가 인용한 정약용의『조선복음전래사』」,『한국 교회사의 탐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98-109면.
프레데릭 불레스텍스 지음, 이향·김정연 옮김,『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 청년사, 2001.
「조선 포교지에서 트라피스트 수도원까지 마리 칼레 신부(1833-1884)」,『교회와 역사』119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5, 4-5면.
「『한국천주교회사』 번역본」,『교회와 역사』43,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3, 1면.

【Abstract】

Compilation and Korean translation of the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Charles Dallet, 1874)

Yang, In-Seong*

This article is taking note of the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of Charles Dallet. The background and the time of compilation, and the interaction between Dallet and catholic missionaries of Joseon during the proceedings are reviewed.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f the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to Joseon and its translation into Korean is also examined.

Dallet who had worked as a missionary in India went back home to France in 1867 because of illness. In the central office of the MEP(l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he came to take charge of the arrangement of documents of Daveluy, a catholic missionary of Joseon. With this work Dallet widened his understanding of the Joseon and the catholic church of Joseon. This also paves the way for him to take over the compilation of the catholic church history of Joseon which had been worked by Daveluy. Dallet started the work on the compilation of the catholic church history of Joseon around the year of 1868, not in 1872 as it is known so far.

Dallet worked on the compilation of the catholic church history of Joseon basing on Daveluy's documents, but without any experience of visit to Joseon he had a difficulty. Therefore Dallet sent a letter to his colleagues, catholic missionaries of Joseon, then he was offered materials and information on the Joseon system and language. With this help of the missionaries he could complete the compilation of the catholic church history of Joseon.

The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was published in France in 1874, and the catholic missionaries of Joseon pursued to make its Korean version. At first, they tried to translate the *Goryeojujeung*, the Chinese version of the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into Korean. But they changed their plan to translate the original book in French into

* Researcher, Committee to Promote the Project for Categorizing the Historical Materials on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Korean. Missionaries divided up the translation work from around 1885 to early 1900s. The Korean version was not published in a book form but published serially in the magazine, *Gyeonghyangjapji*. From the compilation work to translation of The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the entire process was accomplished by French missionaries. The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which had been translated only a part of it was translated in full in Korean in 1981.

Keywords: Dallet,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Daveluy, Féron, Ridel, Calais, *Goryeojujeung*.

접수일: 2022.03.30. ‖ 심사일: 2022.04.13. ‖ 게재확정일: 2022.05.19.